

UN 글로벌 디지털 협약 (GLOBAL DIGITAL COMPACT); 2030년 디지털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협약

이명호 (사)케이썬 대표, (사)미래학회 부회장 | lee.myungho@gmail.com

들어가며

2030년 디지털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개인에서부터, 기업,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전 세계 인류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UN(국제연합)이 나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디지털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약속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서 UN의 주도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GDC) 안이 작성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으며, 이에 따른 기회와 도전 또한 엄청나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 시대는 엄청난 기회와 함께 세계 평화, 안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범죄, 가짜 뉴스 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진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유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연결된 사람들만 부유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고 더 뒤처지게 하는 기술들일까요? 아니면 인권을 강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디지털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까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모여서 2030년 디지털 세상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작성하고 있다. 협약의 준비는 UN 사무총장 기술 특사 사무소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UN 디지털 기술 트랙에서 협약안에 대한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등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UN 주재 스웨덴과 르완다 상임대표가 공동 촉진자로 주도하고 있는 협약안은 올해 9월 UN에서 열리는 미래 정상회의(Future Summit)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전 세계 디지털 세상을 건설하는데 청사진이 될 것이다. 새롭게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협약 논의에 대응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간 및 시민사회의 논의 참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의견을 내고 디지털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협약안은 4월 1일에 제로 드래프트(Zero Draft)가 나온 이후 5월 15일에 첫 번째 초안이 나왔다. 제로 드래프트와 초안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서는 최종안도 일부 자구의 수정은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이 제기된 과정과 그 기반이 된 디지털 협력 로드맵, 그리고 협약 초안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UN,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제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국제 및 지역 기구, 기술 및 학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UN은 2018년부터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 왔다. 2020년 6월, UN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디지털 기술이 제시하는 기회를 더 잘 활용하는 동시에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의 권고와 회원국,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기술 커뮤니티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표 1] 디지털 협력을 위한 진행 경과

• 2018. 7.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설립
• 2019.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최종 보고서 제출
• 2020. 6.	UN 사무총장: 디지털 협력 로드맵(A/74/821) 발표
• 2023. 5.	UN 우리의 공통 아젠다 정책 브리프 5. 글로벌 디지털 협약 발표
• 2023. 6.	UN 우리의 공통 아젠다 정책 브리프 8.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무결성 발표
• 2024. 4. 1.	글로벌 디지털 협약 제로 드래프트(Zero Draft) 발표
• 2024. 5. 15.	글로벌 디지털 협약 1차 초안(Rev 1. Draft) 발표
• 2024. 9.	UN 미래 정상회의, 글로벌 디지털 협약 체결 예정

이 로드맵은 연결, 존중, 보호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연결 달성하여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인권은 디지털 기술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과 인간의 주체성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증가하는 온라인 피해와 디지털 보안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

[표 2] 디지털 협력 로드맵의 3대 핵심 가치

	연결: 우리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연결을 달성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 극복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이다.
	존중: 인권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존재하며 디지털 기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과 인간의 주체성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온라인 피해와 증가하는 디지털 보안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

온라인 세계를 연결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 지향적 로드맵은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공공재 촉진,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 보장,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보장,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협력 지원, 디지털 신뢰 및 보안 증진, 디지털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아키텍처 구축 등 8가지 주요 행동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로드맵의 8대 주요 행동 목표

	<p>[글로벌 연결] 2030년까지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연결성 달성 -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p>
	<p>[디지털 공공재] 보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공공재 촉진 - 인터넷의 오픈소스, 공개 출처를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p>
	<p>[디지털 포용성]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 보장 - 소외 계층이 디지털 도구에 동등하게 접근하여 개발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어야 한다.</p>
	<p>[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 강화 -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p>
	<p>[디지털 인권]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보장 - 인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된다.</p>
	<p>[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협력 지원 - 인공지능은 신뢰할 수 있고, 인권에 기반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p>
	<p>[디지털 신뢰와 보안] 디지털 신뢰 및 보안 증진 -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대화를 촉구한다.</p>
	<p>[디지털 협력] 디지털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아키텍처 구축 - 디지털 거버넌스를 우선순위로 삼고 조직의 접근 방식에 집중한다.</p>

글로벌 디지털 협약의 배경과 목표, 원칙

로드맵의 3대 핵심 가치와 8대 행동 목표를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작성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배경, 목표, 원칙, 약속과 행동(5대 목표), 후속 조치 및 검토라는 5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9조에서 61조까지의 약속과 행동(5대 목표)에 담겨 있다.

협약의 배경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포용적 개방적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파트너십, 민첩성과 적응력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협약의 목표는 5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1)모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 (2)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포용과 혜택을 확대 (3)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하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 (4)책임감 있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5)인류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 포용성 확대,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서 12개 키워드로 제시된 협약의 기본 원칙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협약의 기본 원칙

포용성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의 공평한 참여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다양성 촉진
개발 지향적	2030 어젠다 기반, 기술 활용으로 발전 가속화 및 빈곤 퇴치, 최빈국 등 지원
인권 기반	국제 인권법 준수, 모든 인권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존중 및 보호, 아동 권리 증진
성평등과 권한 부여	여성과 소녀들의 디지털 참여 촉진, 성폭력 예방 및 근절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디지털 기술로 환경 문제 해결, 자원 소비 및 환경 영향 최소화
공평성	디지털 경제 혜택의 공정한 분배, 기존 불평등 악화 방지
접근성	저렴한 디지털 기술로 모든 사람의 디지털 참여 보장,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지원
상호운용성	디지털 시스템 간 소통 및 교류 촉진
책임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투명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사용
혁신 친화적	창의성과 경쟁을 통한 디지털 발전, 모든 사회와 기업의 디지털 경제 번영 촉진
다중 이해관계자	정부, 민간, 시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할 강조
미래 지향적	새로운 기술 식별 및 적응,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대응

협약의 약속과 행동(5대 목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의 핵심인 약속과 행동 부분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목표와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약속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한국 등 선진국에서 주목해야 할 조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목표 1 모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SGDs)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

목표 1 달성을 위해 연결성,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기술과 역량), 디지털 공공재 및 인프라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결성 키워드(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연결성)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을 개발하고 반영한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디지털 인프라와 장비 설계, 넷제로(Net-Zero) 통신 인프라와 모바일 기기를 개발한다. 두 번째, 디지털 연결의 이점을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기술 및 역량) 키워드에서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정, 개발하고 실행한다. 디지털화 및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개발한다. 세 번째, 디지털 공공재 및 인프라 키워드에서는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표준을 개발, 보급 및 유지한다. 개방형 표준과 상호운용성 채택 촉진한다. 디지털 공공재와 인프라를 활용한 SDGs 솔루션을 위한 파트너십 장려한다. 디지털이 모두를 위한 인프라,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개방형 표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간에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공공재의 상호 운용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민간 상용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공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표 2 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 및 혜택을 확대

디지털 포용성을 위해서는 혁신 지원, 소비자 권리 보호, 디지털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 촉진, 신뢰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 지식 공유와 기술 이전을 촉구하는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식 공유 및 기술 이전 이니셔티브 촉진한다. 디지털 지식 개발과 연구 역량 접근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디지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수를 늘리기 위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육성한다. 개발도상국에 기술 지원, 제공을 촉구한다. 개발도상국의 혁신 프로그램과 현지 기술 솔루션을 지원한다.

목표 3 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하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

목표 3 달성을 위해 인권,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신뢰와 안전, 정보 무결성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인권 키워드에서는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은 상호 의존적인 원동력임을 밝히고 있다.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디지털 및 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인권 부정적 영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인터넷 거버넌스 키워드에서는 인터넷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려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파편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의 파편화, 진영화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디지털 신뢰와 안전 키워드에서는 기술로 인한 성폭력, 혐오 발언, 잘못된 정보, 사이버 괴롭힘, 아동 성 착취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긴급 촉구 사항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업계 책임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온라인 안전 교육 자료와 안전장치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무결성 키워드는 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보 조작과 간섭은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의 무결성, 관용, 존중을 증진하고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 무결성을 위하여 협약은 독립적인 공익 미디어를 강화하여 다양하고 탄력적인 정보 생태계를 촉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및 검열 위험 완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공개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 무결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목표 4 책임감 있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목표 4 달성을 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데이터 교환 및 표준,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위해서는 개인과 그룹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능력을 부여하고 법적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마련한다. 두 번째, 공유된 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 및 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본 정의와 데이터 분류를 수립한다. 공익을 위한 데이터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공통 정의와 표준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전을 위한 데이터 키워드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는 SDGs의 진전 추적, 목표 설정, 가속화 및 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조기 경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한다.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공유 데이터 세트 구축한다. 2030년까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과 공통 표준을 포함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네 번째,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키워드에서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사용과 공유를 통해 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5 인류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강화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위험에 기반한 신기술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동등한 참여와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AI와 신기술의 미래 방향과 영향을 평가하고 과학적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 UN의 후원 아래 AI 및 신기술에 관한 국제 과학 패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다분야 과학적 위험 및 증거 기반 기회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UN의 후원하에 AI 안전 및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정부 전문가 대표들이 모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및 안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연락 그룹을 발족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구축과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총장이 AI 및 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기금을 설립하여 AI 교육, 컴퓨팅 역량 개발, 표준 데이터 세트 개발을 촉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학적 접근, 증거 기반의 평가와 합의에 대한 강조이다.

협약안에 대한 평가

‘협약의 약속과 행동’ 부분에 이어서 ‘후속 조치 및 검토’ 부분에서는 국제 및 지역 기구, 민간 부문, 학계,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 단체가 협약을 지지하고 이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공, 민간 및 다자 자원의 자원 조달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연결, 존중,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5대 목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 모든 사람의 디지털 기술 혜택 향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책임 있는 데이터 및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협약안 논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디지털의 범위 내에서만 기회와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협약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 왔다. 기억의 보조로서 문자가 발명되고, 기억과 지식을 담아 전달하기 위해 인쇄술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몸은 도구와 같이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손과 눈, 머리는 연필과 종이, 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며 도구와 일체가 되어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도구가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다.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가 각종 지능과 능력의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전히 아날로그가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이 어떻게 이용돼야 한다는 점이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의 부정적 측면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디지털 격차,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범죄, 가짜 뉴스 등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슈는 다루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로운 활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과 조화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의 위험에 대하여 미흡하게 다루지고 있다.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무결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플랫폼의 독점화라는 이슈는 다루지 않고 있다. 개방적,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공공재 구축을 위해서는 플랫폼 독점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실하다. 목표 5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위한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연락 그룹을 발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일정과 한국의 역할

현재 디지털과 인터넷,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인 3월 22일에는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AI에 대한 글로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AI 개발과 사용의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기본 원칙을 수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AI 시스템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증진 및 향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회원국들이 국내 규정과 거버넌스를 통해 책임 있고 포용적인 AI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5월 2일에는 OECD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이 출범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과 국제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향후 3년간 800만 유로(약 117억 원) 지원하게 된다.

5월 21일에는 EU 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2021년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최종 승인된 것이고, 예고 기간을 걸쳐 2026년 중반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같은 날인 5월 21일 서울에서는 AI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서울 선언’이 채택되었다.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에서는 “인간의 창의력(Creativity)과 AI의 개발·사용 간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 창의력(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12개 원칙 중에서 “혁신 친화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다. “혁신 친화적: 창의성(Creativity)과

경쟁이 디지털 발전을 주도한다. 우리의 협력은 규모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와 기업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는 혁신과 잠재력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협약의 다른 부분, 특히 약속과 행동(5대 목표)에는 인간의 창의성과 디지털(AI)의 관계(선순환)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서울 선언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AI와의 선순환을 언급한 것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선순환을 위한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 부족한 인공지능 부분을 보강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발표가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도 ‘창의’가 5대 원칙의 하나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1장 기본원칙의 제4조(디지털 혁신의 촉진)에서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서 22조와 25조에 걸쳐서 디지털 혁신 활동의 자유,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창의’에 대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창의’ 부분에 대한 논리를 더 개발하여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는 9월에는 UN 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체결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위험도 안겨 주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이러한 도전과 위험에 대응하면서 디지털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와 민간 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UN,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https://www.un.org/techenvoy/content/roadmap-digital-cooperation>

UN, Global Digital Compact, <https://www.un.org/techenvoy/global-digital-compact>

Geneva Internet Platform digwatch, Global Digital Compact, <https://dig.watch/processes/global-digital-compact>

전선민(2023.10),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 TTA저널 209호, (2023. 9+10월호)

전선민(2023.3),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와 정책적 대응, KISDI Perspectives

조계원(2024), 새로운 사회계약과 디지털 권리장전: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31권 1호(2024)

송태은(2021), 최근 UN의 디지털 협력 주요의제와 정책적 함의, 국립외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10.16), ‘아태지역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9.25), 디지털 권리장전

연합뉴스(2024.5.2), ‘기시다, 히로시마 시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 출범 선언’

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537

부록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Rev. 1)¹

1. 디지털 기술은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과 사회, 그리고 지구의 복지와 발전에 엄청난 잠재적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국가 간, 국가 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격차가 긴급한 개발 수요와 제한된 자원을 가진 많은 국가들에게 제기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협력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든 국가, 지역사회, 개인이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3. 우리는 신기술의 속도와 힘이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하며 인간과 인간의 발전을 중심에 두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관리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4. 우리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이다. 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원칙, 약속 및 조치를 명시한다.
5. 우리는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 협력은 UN 헌장 및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제네바 원칙 및 행동 계획 선언과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스 의제에 반영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SIS)의 결과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UN은 우리에게 필요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6. 우리의 협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민첩하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국제 및 지역 기구, 기술 및 학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목표

7.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 (1) 모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한다.
 - (2) 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포용과 혜택을 확대한다.
 - (3)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한다.
 - (4) 책임감 있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한다.
 - (5) 인류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원칙

8. 우리의 디지털 협력은 일련의 교차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 (a) 포용성: 모든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공평한 참여는 이 협약의 초석이다. 우리의 협력은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발전시킬 것이다.

¹ 본 문서는 원문을 번역기(DeepL)를 통해 번역한 후 필자가 감수함.
 원문 출처: UN홈페이지(<https://www.un.org/techenvoy/global-digital-compact>)

- (b) 개발 지향적: 이 협약은 2030 어젠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협력은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을 가속화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는 최빈국, 내륙 개발도상국 및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노력이 포함된다.
- (c) 인권 기반: 이 협약은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존중, 보호 및 증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 이러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 (d) 성평등과 권한 부여: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는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의 협력은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여성의 리더십과 주류 성 관점을 장려하며, 기술을 통해 발생하거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증폭되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 및 근절할 것이다.
- (e)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환경 문제를 측정, 모니터링 및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과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이미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고 상당한 탄소 배출량과 전자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우리의 협력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원 소비 증가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 (f) 공정성: 디지털 경제에 포용하려면 기존의 기술 역량과 시장 지배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협력은 디지털 협력의 혜택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되고 기존의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g) 접근성: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디지털 기술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의 협력은 디지털 접근성을 증진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할 것이다.
- (h) 상호운용성: 소통하고 교류하는 디지털 시스템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이다. 우리는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것이다.
- (i) 책임감: 새로운 기술은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다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협력은 효과적인 인적 감독을 통해 디지털 및 신기술의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인간 중심의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을 발전시킬 것이다.
- (j) 혁신 친화적: 창의성과 경쟁이 디지털 발전을 주도한다. 우리의 협력은 규모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와 기업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는 혁신과 잠재력을 촉진할 것이다.
- (k) 다중 이해관계자: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기술 커뮤니티, 학계, 국제 및 지역 조직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역할과 책임이 있다. 우리의 협력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기능과 역량, 다양한 관점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이다.
- (l) 미래 지향적: 디지털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식별, 평가, 추적 및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과 행동

9.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행동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목표 1. 모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한다.

연결성

10. 우리는 디지털 및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어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며 의미 있는 연결성과 합리적인 가격의 액세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 특히 민간 부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력한 파트너십과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외딴 지역과 농촌 지역에 고속 연결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11.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ITU의 작업을 기반으로 의미 있고 저렴한 보편적 연결을 위한 공통 목표, 지표 및 측정지표에 합의하고 이를 국제, 지역 및 국가 개발 전략에 통합한다(SDG 9).
- (b) 나머지 26억 명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연결의 품질과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혁신적이고 혼합된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우리는 국가 인구 하위 40%의 평균 소득의 2% 미만으로 보급형 광대역 가입 비용을 목표로 할 것이다(SDG 1 및 9).
- (c) 농촌, 오지,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고 구축한다. 최소 10Mb/s의 속도로 보편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DG 9, 11).
- (d) ITU와 유니세프의 기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모든 학교를 인터넷에 매핑하고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을 제공한다(SDG 3, 4).
- (e) 에너지, 물, 광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을 개발, 합의, 국가 및 산업 전략에 반영한다(SDGs 4, 6, 7, 8, 12, 13).
- (f) 디지털 인프라와 장비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도록 한다. 넷제로 통신 인프라와 모바일 기기를 목표로 한다(SDG 11, 12, 13, 14).
- (g) 국가 및 지역 디지털 연결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 소외된 지역사회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포함시킨다(SDG 10 및 11).
- (h)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의미 있고 저렴한 디지털 연결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연결 전략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한다(SDG 5).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및 역량

12. 디지털 연결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디지털 공간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각 사회와 모든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요구를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과 평생 디지털 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역량은 온라인에서 지역 콘텐츠와 지역 현실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3.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국가 디지털 기술 전략을 수립 및 지원하고, 모든 수준의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하며, 디지털 시대를 위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의 목표는 기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최소 80%, 중급 또는 고급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최소 60%를 달성하는 것이다(SDG 4, 5).
- (b) 다양한 언어와 형식의 디지털 기술 플랫폼, 서비스, 소프트웨어, 교육 커리큘럼의 가용성을 높인다(SDG 4, 10).
- (c) 여성과 소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외된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에 힘쓰고,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에 각자의 관점을 고려한다(SDG 5, 10).
- (d) 학습 격차를 파악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를 알리기 위해 데이터와 성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국가 디지털 포용성 설문조사를 개발하고 수행한다(SDG 5, 10).

- (e) 사이버 보안 역량 및 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정,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SDG 16).
- (f) 디지털화 및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개발하고, 노동력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한다(SDG 8).
- (g) 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자금의 동원, 급격한 기술 변화와 두뇌 유출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와 교육 표준을 개발한다(SDG 4, 17).

디지털 공공재 및 인프라

14. 우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AI 모델, 표준, 콘텐츠 등 자유롭게 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재가 사회와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개발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는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한다.
15. 우리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각 사회가 특정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공유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임을 인정한다.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디지털 시스템과 안전장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16. 우리는 디지털 공공재와 인프라를 포용적 디지털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17.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표준을 개발, 보급 및 유지한다(SDG 8, 9, 10).
 - (b)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에서 디지털 공공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과 상호운용성의 채택을 촉진한다(모든 SDG).
 - (c)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위한 일련의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결정하여 각 사회의 특정 요구에 맞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SDG 16).
 - (d) 기존의 UN 및 기타 저장소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모범 사례와 사용 사례를 교환하고 공개하여 정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SDG 16, 17).
 - (e) 특히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공공재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SDG 17).
 - (f)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기술 및 학계, 국제 및 지역기구가 함께 디지털 공공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SDGs를 위한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이니셔티브를 설계, 실행 및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장려한다(SDG 17).

목표 2. 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 및 혜택 확대

18.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평하고 저렴한 접근이 모든 사회를 위한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디지털 접근이 지식, 연구, 역량 습득 및 개발의 기회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19. 디지털 포용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디지털 인재와 기술을 육성하고,

디지털 기업이 정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향상시키는 정책, 법률 및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디지털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

- 20. 강력한 사이버 보안 표준과 역량 또한 상업적 거래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21.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 (b) 법률, 규제, 정책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 공유 등 디지털전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노력을 지원한다(SDG 10, 16).
 - (c) 디지털전환의 격차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알리기 위해 국가 디지털 준비도 평가를 실시한다(모든 SDG).
 - (d) 지역 및 다자간 기구와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별 디지털전환 요구와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SDGs 17).
 - (e)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 및 기술 이전 이니셔티브를 촉진한다(SDG 17).
 - (f) 디지털 지식 개발과 연구 역량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남북, 남남, 삼각 협력을 장려한다(SDG 17).
 - (g) 개발도상국의 혁신 프로그램과 현지 기술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SDG 9).
 - (h)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여성, 청년, 기타 전통적으로 소외된 기업가를 포함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육성한다(SDG 8, 9).
 - (i) 국가 디지털 혁신 전략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역량 강화 및 기술 습득을 촉진한다(SDG 9).

목표 3. 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하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 조성

인권

- 22. 우리는 인권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 의존적인 원동력을 인식한다.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디지털 및 신흥 기술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국제 인권법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피해, 편견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디지털화의 혜택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민간 부문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 23. 우리는 다음을 약속한다.
 - (a)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국내법이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모든 SDGs).
 - (b) 디지털 및 신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인권 실사 실시 등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 침해 및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모든 SDG).
 - (c)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한다(모든 SDGs).
- 24. 우리는 요청이 있을 경우 자발적인 자원을 통해 정부, 민간 부문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권 및 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UN 디지털 인권 자문 서비스를 OHCHR 내에 설치하라는 사무총장의 요청을 지지한다(모든 SDGs).

25. 우리는 다음을 촉구한다.

- (a) 디지털 기술 기업과 개발자들이 기술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 실사 및 영향 평가를 적용하는 등 인권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모든 SDG).
- (b) 디지털 기술 기업, 개발자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인권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및 기타 관련 프레임워크에 따라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SDGs 5, 10, 16).

인터넷 거버넌스

- 26. Facebook은 인터넷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글로벌 시설임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이 모두에게 완전한 혜택을 주려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파편화되지 않아야 한다.
- 27. 우리는 모든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방식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역할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토론의 중심 포럼으로 인식한다.
- 28. 우리는 다음을 약속한다.
 - (a)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장려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온라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SDG 9).
 - (b) 재정 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유지하고 지원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SDG 9, 10).
 - (c) 인터넷의 파편화 위험을 적시에 예방, 식별 및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SDG 16).
 - (d) 인터넷 차단을 자제하고 모든 제한이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한다(SDG 16).

디지털 신뢰와 안전

- 29. 우리는 기술을 통해 발생하거나 기술을 사용하여 증폭되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모든 형태의 혐오 발언과 차별,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사이버 괴롭힘, 아동 성 착취 및 학대를 시급히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강력한 위험 완화 및 구제 조치를 수립하고 유지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 30.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국제법을 준수하는 공통 표준, 가이드라인 및 업계 조치를 정의하고 채택하여 모든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고, UN 기구, 지역 조직 및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고려하여 안전한 시민 공간을 촉진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를 해결한다(SDG 3, 5, 9, 10, 16, 17).
 - (b) 정부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국가 온라인 아동 안전 정책 및 표준의 개발과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SDG 3, 5, 10).
 - (c) 국가 온라인 안전 기관 간의 정기적인 협력을 제도화하여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킨다(SDG 17).
 - (d) 감시 및 암호화와 같은 영역에서의 기술 사용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한다(SDG 10, 16).
 - (e)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기술을 통해 발생하거나 기술 사용으로 인해 증폭되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측정, 추적,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개발한다(SDG 5).

- (f) 기술을 통해 발생하거나 기술을 사용하여 증폭되는 아동 성 착취 및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및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SDG 3).
- 31. 우리는 더욱 긴급히 요청한다.
 - (a) 디지털 기술 기업과 개발자들이 모든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용자들과 소통하여 그들의 관점과 요구를 디지털 기술의 수명 주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SDG 5, 10).
 - (b) 디지털 기술 기업과 개발자에게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책임을 정의하고 표준과 감사 가능한 공개 보고서를 약속하는 업계 책임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SDGs 9, 17).
 - (c)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 특히 서비스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온라인 안전 관련 교육 자료와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SDG 3).
 - (d)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아동을 위한 특별 신고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그 옹호자가 잠재적인 정책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SDG 3).

정보 무결성

- 32.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위해서는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디지털 및 신기술이 사회와 개인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정보의 조작과 간섭을 촉진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는 물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 33.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의 무결성, 관용 및 존중을 증진하고 민주적 절차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 조작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 34.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 및 정보 제공자와 안전하고 비판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허위 및 허위 정보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배포한다(SDG 4).
 - (b) 독립적인 공익 미디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정보 생태계를 촉진한다(SDG 9, 16).
 - (c) 허위 및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하며, 시의적절하고, 목표가 명확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다국어 및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 홍보 및 보급한다(SDG 3, 4, 9, 16).
 - (d)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 소외된 지역사회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한다(SDG 10).
- 35. 우리는 더욱 긴급히 촉구한다
 - (a)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서비스 약관, 콘텐츠 중재 정책, 현지 언어로 된 사용자 개인정보 처리 등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SDG 9, 10).
 - (b)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안전장치와 함께 연구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업계의 정책, 표준 및 모범 사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SDG 9, 16, 17).
 - (c) 디지털 기술 기업과 커뮤니티에 시가 생성한 허위 정보 및 검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SDG 10, 16, 17). 여기에는 AI 생성 자료 식별, 콘텐츠 및

출처에 대한 진위 인증, 워터마킹 및 기타 기술 등이 포함된다.

목표 4. 책임감 있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36. 우리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파편화되고 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음을 인식한다.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 상충되는 인센티브, 데이터 중심의 기술 가속화로 인해 데이터와 데이터 사용 역량이 비대칭적으로 집중되어 왔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개발 목표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AI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의 수집, 공유,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부재할 경우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
37. 우리는 디지털 및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강화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하면서 데이터 사용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지역 및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UN이 데이터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협력과 조화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38.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존 국제 및 지역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모든 SDGs).
 - (b) 효과적인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모든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모든 SDG).
 - (c) 개인과 그룹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고려하고, 동의하고, 철회할 수 있는 능력과 데이터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SDG 10, 16)를 통해 데이터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 (d) 데이터 수집, 액세스, 공유, 전송, 저장 및 처리 관행이 투명하고 안전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모든 SDG).
 - (e)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처리, 분석,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개발한다(SDG 8, 9).

데이터 교환 및 표준

39. 우리는 성별 데이터 격차를 포함한 데이터 격차가 혜택의 불평등한 분배와 데이터의 오용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40. 우리는 공유된 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교환이 데이터의 접근성과 공유를 높이고 데이터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가, 지역사회, 단체, 개인이 각각 자신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 데이터와 데이터 공유재를 활성화할 것이다.
41.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정기적인 데이터 감사를 포함하여 데이터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편견, 차별, 인권 침해 및 남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한다(SDG 3, 5, 10, 16).
 - (b)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본 정의와 데이터 분류를 수립한다.
 - (c) 공익을 위한 데이터의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공통의 정의와 표준을 개발한다(모든 SDG).

개발을 위한 데이터

42. 우리는 양질의 데이터가 SDGs 전반의 진전을 추적, 목표 설정 및 가속화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발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SDG 데이터의 공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의 책임 있는 사용과 공유를 지지하여 SDGs 전반의 진전을 촉진할 것이다.

43.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데이터 및 통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데이터 및 관련 기술 역량과 책임 있는 데이터 사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데이터에 대한 자금 조달을 5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SDG 17).
 - (b)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존중하면서 2030 의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성 있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전파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성별 및 기타 관련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SDGs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5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SDG 5, 10).
 - (c) 효과적인 재난 조기 경보 및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한다(SDG 11).
 - (d) 전 세계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및 기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공유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우리의 목표는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관한 글로벌 환경 데이터 세트와 같은 양질의 표준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것이다(SDG 12, 13).
44. 우리는 UN 통계위원회와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위원회의 작업을 기반으로,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사용 및 전송을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과 공통 표준을 포함한 분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제79차 회의에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공동 촉진자를 개도국 및 선진국 각 1명씩 임명할 것을 총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기존 국가, 지역 및 국제 데이터 시스템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 사례 및 제안, 개발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모든 SDG).

국경 간 데이터 흐름

45.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동인이다. 우리는 책임감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개발적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관련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존중하면서 국가 내 및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포용적인 메커니즘을 발굴할 것이다.
46. 우리는 2030년까지 다음을 약속한다.
 - (a)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점, 상호 보완성, 융합 및 차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를 진행한다(SDG 17).
 - (b) 적절한 경우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사용과 공유를 통해 국가, 지역 및 국제 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지원한다(SDG 8, 9, 10).

목표 5. 인류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47. 우리는 모든 국가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통해 신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위험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48. 우리는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국제, 지역, 국가 및 업계의 노력을 인정한다. 우리는 AI 시스템이 모든 사회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위험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새로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조정, 호환성

-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49. 우리는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과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과 같은 자발적 기구를 충분히 존중하여 AI의 혜택을 활용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50. 우리는 모든 SDG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막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인공지능의 적용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지원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신기술이 노동과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51. 우리는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에는 민첩하고 다양한 분야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있어 UN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52. 우리는 이 협약을 통해 국제, 지역, 국가 및 업계의 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AI 및 기타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이다.
 - (a) AI와 신기술의 미래 방향과 영향을 평가하고 과학적 합의를 촉진한다.
 - (b) AI 거버넌스 접근 방식과 상호운용 가능한 규범, 안전 표준 및 위험 관리의 호환성을 지원한다.
 - (c)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AI 시스템과 신기술에 접근, 개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3.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약속한다.
 - (a) UN의 후원하에 독립적인 다분야 과학적 위험 및 증거 기반 기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AI 및 신기술에 관한 국제 과학 패널을 설립한다. 이 패널은 국가 및 지역의 지평선 스캔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공통 평가 방법론, AI 정의 및 분류법, 완화 조치 개발에 기여한다.
 - (b) UN의 후원하에 매년 관련 주요 UN 회의 및 회의의 여백에 AI 안전 및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정부 전문가 대표들이 모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및 안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연락 그룹을 발족한다. 이러한 교류는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는 거버넌스 접근 방식과 AI 안전에 관한 모범 사례 전반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것이다. 이 연락 그룹의 활동은 포용적인 파트너십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연례 AI for Good Summit을 비롯한 AI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54. 따라서 우리는 총회 의장에게 제79차 총회 회의에서 AI 및 신기술에 관한 국제 과학 패널의 설립과 기능을 위한 기준과 방식, 총회에서 채택할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연락 그룹의 방식에 대해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공동 촉진자를 임명할 것을 요청한다.
 55. 상호운용 가능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 지역 및 국가 표준 제정 기관이 ITU의 작업을 기반으로 안전, 신뢰성, 지속가능성, 양성평등 및 인권을 지지하는 AI 표준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SDG 5, 7, 9, 10, 12, 16, 17).
 56.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 부문을 위한 AI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지침을 홍보하며, AI 모델 교육 및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AI 역량 강화에 관한 국제 파트너십 개발을 장려한다(SDG 4, 17).
 57. 우리는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특히 ITU의 AI for Good Summit, 유네스코의 준비성 및 윤리적 영향 평가 방법론, WHO의 디지털 건강 이니셔티브 및 기타 관련 노력을 통해 AI 격차를 해소하고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한다(모든 SDGs).
 58.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양질의 데이터 세트, 컴퓨팅 역량, 현지 솔루션, 사용 사례 및 기업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 남남, 삼각 협력을 촉진한다(SDG 4, 9, 10, 17).

- 59. 특히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구축과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한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특히 민간 부문이 이러한 노력에 재정 및 기타 자원을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SDG 17).
- 60. 우리는 또한 사무총장이 자신의 권한 하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AI 및 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기금을 설립하여 기술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AI 기술 기반 교육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컴퓨팅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대규모 AI 사용을 알리기 위한 양질의 표준 데이터 세트 개발을 촉진하고, SDG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 61. 이 기금은 공공, 민간 및 자선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2025년 출범 시 1억 달러의 초기 금액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잠재적 기부자들과 협의를 시작하고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대한 연례 보고의 맥락에서 기금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후속 조치 및 검토

- 62. 우리는 법적 프레임워크, 국가 역량, 정책 및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자국 내에서,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이행한다.
- 63. 정부 주도의 노력은 디지털화에 대한 혁신과 기여가 근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민간 부문, 기술 및 학계,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협약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과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 64. 우리는 국제 및 지역 기구, 민간 부문, 학계,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 단체가 이 협약을 지지하고 그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자발적 지지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고 2024년 12월부터 이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65. 우리는 이 협약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자원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공동 SDG 기금의 디지털 창구 및 다자개발은행의 시설과 같은 UN 메커니즘을 통해 대규모 임팩트를 위한 공동 및 혼합 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공공, 민간 및 다자 자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디지털 및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산 배정을 늘리는 등 개발 원조에 디지털전환을 필수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과 자선 단체들이 이 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서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66. 우리는 WSIS에서 나온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협약의 약속과 행동의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ITU(국제통신연합),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DP(유엔개발계획), 유네스코를 포함한 모든 UN 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의 기여를 인정하며, 특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SDG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와 연례 WSIS 포럼이 제공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행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디지털전환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역 및 국가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UN 지역경제위원회와 UN 국가팀의 역할을 인정한다.
- 67. 우리는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협약의 약속과 행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HCHR(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인정한다.
- 68. 우리는 WSIS의 결과 이행에 대한 UN 시스템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개발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의 포용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위원회가 협약 이행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69. 우리는 2025년 WSIS+20 검토를 통해 WSIS 프로세스가 어떻게 협약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WSIS+20 검토에서 이러한 노력에 청년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70. 우리는 디지털 및 신기술에 대한 UN 시스템 차원의 협력을 주도하는 데 있어 사무총장의 역할을 인정한다. UN이 이

협약에 명시된 디지털 협력을 위한 포용적이고 글로벌한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조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운영 기능, 구조, 자원 및 인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기존 사무총장 기술 특사실의 활동과 자원을 기반으로 통합하여 시스템 차원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무국 내 사무소 설립을 위한 제안을 제79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71.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약속과 행동을 지원하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반영하고 성취를 위한 잠재적 시간제한 목표를 식별하는 협약 이행 지도를 제공하여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72. 우리는 회원국 및 기타 참여 이해관계자들이 고위급 정치 포럼에 대한 자발적 국가 보고의 일환으로 SDGs 이행 활동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초청한다.
73.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국가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다중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협약의 목적과 목표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포럼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약의 약속과 행동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례 정책 토론 트랙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74. 기술의 속도로 인해 디지털 협력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 포럼과 경제사회 이사회가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가속화와 관련하여 협약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진전을 추적하는 데 있어 UN 인권이사회를 인식하고 있다.
75.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모든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 이해관계자와 관련 UN 기관 및 단체의 작업을 활용하여 2026년부터 협약 이행의 진전, 주요 동향 및 발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76. 디지털 기술의 교차적 특성과 디지털 협력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시너지 효과와 조율된 후속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목표에 대한 진전을 평가하고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협약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제81차 총회 회기 중에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대한 고위급 검토”라는 제목의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며, 여기에는 CSTD(과학기술개발위원회), IGF(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WSIS 액션 라인 촉진자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우리는 총회 의장에게 이 고위급 회의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80차 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각각 한 명씩 공동 촉진자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